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의 길 활짝 열어

전북독립영화협회·전북독립영화제작위원회, 2016전북독립영화제 개막

독립영화인들의 축제인 2016전북독립영화제가 3일~7일 전주시내(마리)에서 열린다. 너랑 걷고 싶다는 슬로건으로 내건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길을 관람객들과 함께 걷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2016전북독립영화제의 전체 상영작은 총47편이며 경쟁과 초청을 포함해 총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대상 1편 및 우수상 2편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경쟁부문'에서는 400여 편의 응모작 중에서 예심을 통과해 올라온 4편의 장편과 28개의 단편을 상영한다.

'초청부문'의 초청 섹션은 2015 전주영상위원회 인큐베이션 사업 선정작인 김광복 감독의 장편영화 <사월의 끝>이 지역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영화는 어느 오래된 아파트에 이사 온 젊은 여성과 옆집 사는 여고생 가족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지역교류상영점을 테마로 하는 초청은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우수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다.

세대 및 지역 간 소통을 이야기하는 조재형 감독의 <맛의 기억>이 광주를 정체된 시간에 대한 사유가 돋보이는 김은영 감독의 <중고 풀이>가 대구를 대표해 상영된다.

또한 대전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안솔기 감독의 <필유곡>이, 부산은 청소년 문제를 다룬 김수지 감독의 <나는 집으로 간다>가 초청되었다.

초청3은 전북독립영화협회가 지난 7년간 이끌어 온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 사업이 배출한 단편영화가 주인공으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재능 있는 도내 영화인들의 솜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2010년 1기 최진영 감독의 <마리와 레티>를 시작으로 <구토>(임경희 감독), <그 여자>(조미혜 감독), <지상의 밤>(전정지 감독), <돌 세 개>(박영완 감독), <사막 한 가운데서>(채한영 감독) 등 총

6편의 단편을 선보인다.

영화제의 개막식은 3일 오후7시 전주시내(마리)은 5관에서 열린다.

2016전북독립영화제는 2010년부터 개막작을 자체 제작하며 지역의 영화인들을 지원해 왔으며, 그 해 전국에서 작품성과 개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단편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영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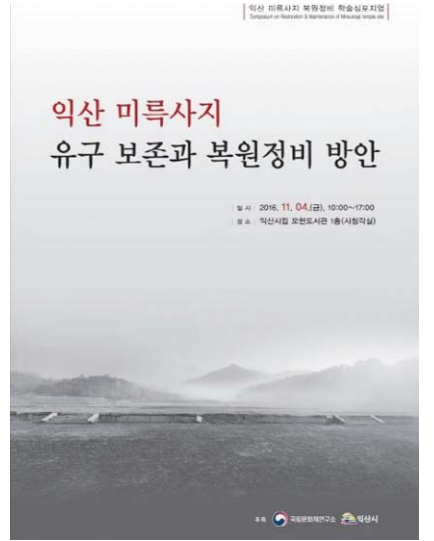
올해 개막작은 총4편의 단편영화로 구성된다.

축제의 막은 전라북도가 제작지원하고(사)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한 2016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 제작지원 김진아 감독의 <숨바꼭질>을 필두로 시작된다.

이와 함께 2016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부문 대상 및 2016미장센 단편영화제 비정성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지원 감독의 <여름밤>, 2016미장센 단편영화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부문 초청과 2016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페



스티벌 단편 <그림자>를 수상한 정다희 감독의 애니메이션 <빈 방>, 마지막으로 2016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및 2016대구단편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김인선 감독의 <수요기도회>가 잇달아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익산 미륵사지, 보존·정비 위한 토론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 익산시, 학술심포지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익산시는 오는 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백제 무왕 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사찰로 1969년 최초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1994년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기단배치의 특징이 밝혀졌다.

또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조사 과정에서 석탑 1층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을 통해 639년이라는 창건연대가 밝혀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미륵사지 복원정비 연구 현황과 계획, 유구 손상도 평가에 따른 보존정비 방안과 배수체계 개선방안 국내·외 건축유적 보존정비 사례 등 총 3부에 걸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미륵사지 복원정비사업의 내용을 되짚어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는 익산 미륵사지 복원정비연구 현황과 과제(김현용·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 보존의 역사와 유형, 국내·외 연구 사례를 짚어 보는 국내·외 건축유적 보존·정비 및 활용사례(김우영·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펼쳐진다.

2부에서는 미륵사지의 가치와 진정성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고찰을 담은 미륵사지 복원정비 계획(한수성·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건물지 기반부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안하는 미륵사지 건축유적 보존정비 방안(서지은 정지원·국립문화재연구소)을 들이본다.

3부에서는 미륵사지 석재유구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 구축을 다룬 미륵사지 석재유구의 손상도 평가와 보존방안(이찬희·공주대학교), 미륵사지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배수문제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륵사지 배수체계 개선방안(하성호·서정엔지니어링)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끝나면 김봉건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발표한 사례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미륵사지 보존정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최근까지 진행된 익산 미륵사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유구의 보존과 복원정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청춘들의 절묘하고 리얼한 연애담 '내가 널 파리에서 사랑했을 때'

제프다이어 신간 출간

이 소설의 원제는 'Paris Trance'다. 'trance'는 내가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황혼을 뜻한다. 1인칭과 3인칭이 교차하는 서술과 절묘한 단어들로 수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 '무아'는 더욱 빛을 발한다.

알랭 드 보통과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랑하는 작가라는 제프다이어가 취한 듯 써 내려간 이 책은 사랑에 취한 청춘들의 절묘하게 리얼하고 섹시한 연애담이다.

눈앞에 놓인 사랑, 그 어떤 대상 그 대상이 주는 미칠 듯한 행복에 빠져들어 감히 버린 순간을 유려하게 그려낸다.

제프다이어는 '영국문학의 르네상스인', '국가적인 보물' 등으로 평가받는 영국 최고의 작가다. 소설, 에세이, 프로트라이프 등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 특유의 세계를 선보인 1992년 서머셋 몸 상, 2004년 W. H. 스미스 가장 훌륭한 여행서 상, 2006년 E. M. 포스터 상, 2011년 전미도서비평가 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 영국왕립문학협회 회원으로, 2009년에는 'OJ' 선정 올해의 작가에 뽑히기도 했다.

이 책 내 '널 파리에서 사랑했을 때'는 '시작은 그렇게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로 첫 페이지가 펼쳐진다.

삶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20대 청춘 앞에 놓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그 시기이기에 가능한 취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꿈에 취하고, 만년에 취하고 연애에 취

하고, 하루하루의 유희에 취하고 뒤는 돌아보지 않는 시간들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던 시간들이 살아 숨 쉰다.

책을 쓰기 위해 런던에서 파리로 이주한 스물일곱 루크는 각국에서 파리의 삶을 찾아 온 이들이 모인 한 참고소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베오그라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매력적인 여인 니콜과 데이트를 하고 첫날 사랑을 나누며 급속도로 그녀에게 빠져든다.

니콜과 루크는 작은 대화 하나부터 사소한 취미까지 모두 자신과 딱 맞다고 여긴 루크는 그녀와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랑을 꿈꾸게 된다.

한편 참고소에서 함께 일하는 알렉스도 새 여자친구 사라와 연애를 시작하고, 루크와 니콜, 알렉스와 사라 4명이 함께 모이는 시간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나 사랑을 사랑하면서도, 만날 때마다 생기가 넘치는 니콜에게도 눈이 머무는 알렉스 그런 알렉스를 놓치지 않는 루크. 각자 완벽한 상대를 만났다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믿었던 이들의 나날에는 언제인가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은, 일단 입 밖에 나오고 나면, 한때 그 말이 담고 있던 감정을 다시는 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갈망이 더 압도적이었다. 그



이 소설의 원제는 'Paris Trance'다. 'trance'는 내가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황혼을 뜻한다

는 그녀를 바라보며 혼잡해하듯이,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사랑해, 사랑해."(p109)

당신은 어떤 사랑을 했는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아름다웠던, 아니면 고통이었던, 아니면 미련남은 사랑의 조각들을 다시 느껴보게하는 책이다. 김현우 옮김, 392쪽, 웅진지식하우스 1만5000원. /뉴시스

문체부 "최순실 개입 의혹 국가브랜드 계속 사용" 밝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태극 무늬의 정부 상징 체계와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2일 정부 상징과 국가 브랜드에는 최순실 개입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계속 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날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광고 감독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 사업을 점검·감증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1일 가동시켰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이를 비껴간 것이다.

문체부 관계는 "따로 조사를 진행할 건은 아니라고 봤다.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완료된 사안이고, 관련 의혹들은 앞서 다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최순실 측근 차은택 광고 감독이 정부상징 체계 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인, "정부상징 디자인은 문체부가 개발주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변형된 태극 무늬인 정부 상징은 정식 변경도 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자문단 회의에서 무궁화 대신 태극무늬를 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앞서 TV조선 등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3일)

<p>▷쥐띠 46년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활기찬 운이니 적극 진행하라. 60년생: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운이니 나서지 말라. 72년생: 타인의 도움을 따르나 큰 움직임은 좋지 못하다. 84년생: 자신민만한 일에도 실수가 따르는 운.</p>	<p>▷소띠 49년생: 자신의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운이. 61년생: 행동하고 배운 만큼만 돌아오는 운이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중요시해야 하는 운. 85년생: 자신이 정한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p>	<p>▷호랑이띠 50년생: 구슬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 신경. 62년생: 서두르며 실패하니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행동하라. 74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실. 86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p>	<p>▷토끼띠 51년생: 같은 화려하나 속은 무실한 운이니 내실을 다지라. 63년생: 경쟁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 맞서기 보다는 회유. 75년생: 기존의 해로운 방식으로 현상유지 하는 것이 좋다. 87년생: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으나 일적으로는 좋은 운.</p>
<p>▷용띠 52년생: 자신의 주변에 참모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64년생: 자신의 뜻을 급할 줄도 알아야 발전이 있는 법이다. 76년생: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운. 8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라.</p>	<p>▷뱀띠 53년생: 외부의 화려하나 내부적인 일은 혼란스러운 때. 65년생: 아직은 길한 운이 아니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라. 77년생: 사업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운. 89년생: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주변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라.</p>	<p>▷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마음을 다잡아라. 66년생: 방심은 금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 78년생: 사소한 일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운.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쉬어가라.</p>	<p>▷양띠 55년생: 작은 것이 연연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 67년생: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 이리저리 못하고 지러지듯 못한다. 79년생: 좋은 일 하러다 뺏기는 격. 나서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으니 큰일은 불리하다.</p>
<p>▷원숭이띠 55년생: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할 시기. 68년생: 외부적인 일에 이득이 많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80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다. 92년생: 실물수가 따르니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라.</p>	<p>▷닭띠 57년생: 예상하고 있던 일이 빛나갈 수 있다.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81년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때.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p>	<p>▷개띠 4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 60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은 중요하다 보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 72년생: 부하나 아랫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84년생: 조력자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p>	<p>▷돼지띠 47년생: 일과 행동을 할 때 심황과 사람에 따라 구별하라. 59년생: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운. 71년생: 매사 요령 있는 대처가 필요한 운이다. 83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p>